

# 외국인 손님 복적... 거리는 활기, 상인들은 웃음꽃

## 르포-선수촌 인근 둘러보니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선수촌이 위치한 화정동 인근 상가는 물론 상무지구와 광주신세계 주변이 들쭉이 있다.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선수촌 인근 화정동과 영주동 상가는 물론 숙박업소가 몰려있는 상무지구는 본격적인 손님맞이로 분주한 모습이였다. 선수촌에 근접한 식당 등 상가들은 선수촌 주변 출입제한으로 다소 한산한 편이었지만,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먹자골목 등에는 참가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둘러 휴식을 취했다. U대회를 앞두고 선수촌 인근에는 카

## 상무지구 호텔 방 동나고 신세계백화점 쇼핑객 늘어 먹자골목·편의점 모처럼 호황 지역 광고업체도 일감 쏟아져

페 10여 곳이 문을 열었고 기존 식당들도 간판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단장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는 평이다. 특히 간단한 생활용품과 패스트 푸드 등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 젊은 외국선수들이 몰려 호황을 누렸다. 인근 상가주민들은 대회기간 선수들의

야간 외부출입이 가능해, 선수촌을 중심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상무지구 숙박업소는 방이 동이 난 상태로 거리에서는 대회관계자와 외국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광주U대회 공식지정 호텔인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을 비롯해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등은 대회기간인 12일 동안 객실 예약이 100% 완료된 상태다. 예약이 몰리면서 광주권 중소형 숙박시설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상무지구에서 퓨전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3)씨는 "국제적 행사라 젊은이들의 축제인 만큼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등 신경을 썼다"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즐겁게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촌과 대회 경기장에 가까이 있는 광주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도 외국인 쇼핑객이 찾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칠레, 몬테그로 선수와 관계자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했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을 방문하는 선수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을 비치하는 등 단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백상일 광주신세계 홍보팀장은 "선수단의 입촌이 완료되면서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 쇼핑객이 늘었다"며 "대회가 시작되면 선수들과 관계자 등 더 많은 손님이 올 것"이라며 특수를 기대했다. 광주U대회를 계기로 시설·광고업종의 지역업체에도 일감이 쏟아지면서 호황을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 30억원이 투입된 환경장식에 지역 광고업체들이 일감의 90%를 소화했다. 가이자동차와 광주은행 등 지역 후원 기업들도 광주U대회 마스코트를 활용, 건물 벽면에 대형 옥외 광고 등을 설치하면서 해당 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광주U대회 조직위가 경기장 기능실 설치 공사에 80억원을 발주한 상태다. /특별취재단=김대성기자 bigkim@

## U대회 이모저모

### 한국 선수단 기수에 이승현

지난 시즌 프로농구 신인상 수상자 이승현(23·고양 오리온스)이 광주 U대회 개최식 한국 선수단 기수로 선정됐다. 키 197cm인 이승현은 지난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오리온스에 지명됐으며 정규리그에서 평균 10.9점을 넣고 리바운드 5.1개를 잡아내는 활약을 펼쳤다. 2년 전인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에서는 남자 배구 국가대표 이강원(25·198cm)이 기수를 맡은 바 있다.

### 광주경찰, 항공 순찰 실시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U대회 안전을 위해 항공 순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회 개막일인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남과 인천항공대 소속 헬기 2대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경기장과 시설을 매일 순찰하며 실시간 촬영 영상을 전송, 신속하고 입체적인 지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외국어 기동 서비스반 운영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 현장의 긴급한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국어 기동 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어 기동 서비스반은 8개 언어에, 150명의 외국어 우수 자원봉사자로 구성됐다. 지난 25일부터 개막일인 14일까지 전남반과 교대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 특산물 마케팅으로 지역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14일 광주U대회 주경기장과 광주·전남 일원에서 우리 수출 농산품의 홍보행사를 마련한다. 광주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근처에 마련된 마켓스트리트에 수출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해 해외선수단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수출 농산품을 전시하고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각종 이벤트도 선보인다. 특히 U대회 취재자 한국을 방문한 외신기자단을 초청해 전남지역 수출 농산물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팸투어도 전남도와 함께 운영한다.

### 주경기장에 'K-ICT 체험관'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북문 마켓 스트리트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K-ICT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체험관에서는 스마트 골프 코칭서비스와 가상 현실 실내 사이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홈피트니스 등 스포츠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특별취재단=최권일기자 cki@

## 부가가치 등 최대 1조2000억 창출

### U대회 경제적 효과는

2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대회기간에 선수·임원 1만3000여명과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 관광객 등 모두 17만여명(외국인 4만여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도 9000여명이며 이 중 외지 봉사자만 2500여명에 달한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위해 총 예산 2834억원을 투입한 상태로 지역 경제가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숙박비, 문화행사, 경기운영 등에 41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관광객의 식사 관광 쇼핑 등으로 광주가 거둬들이는 직접 경제효과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3500억원(내외경제연구원 추산)에서 최대 1조2000억원(광주발전연구원 추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관련 기관들은 참

숫자로 본 U대회	
17만명	광주 방문객
4만명	외국인 방문객
10000명	자원봉사자
1000억원	직접효과

가 선수와 임원단이 관광, 쇼핑,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광주와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2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수촌에 안내버스와 관광전문가를 배치하고 쇼핑코스에는 통역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 3개 코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광주와 함께 전남·북 지역을 알리는 계획도 세웠다. /특별취재단=김대성기자 bigkim@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U대회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공식 입촌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 양학선·기보배 등 입촌... “금빛 사냥 기대하세요”

### 한국 선수단 입촌식

광주U대회 한국 선수단이 2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입촌식에서 금빛 사냥을 다짐했다. 이날 입촌식에는 양학선(기보배), 기보배(양궁), 이소담(여자 축구)을 비롯해 축구와 수구, 기계 체조 등 종목 선수 110명이 참가했다. 슬로바키아, 몬테네그로,

### 광주·전남 출신 60명 출전 8개국 선수단도 입촌식

아르메니아, 리히텐슈타인, 방글라데시, 인도, 온두라스,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 선수단도 함께 입촌식을 가졌다. 30여 분 동안 계속된 입촌식 행사는 비보이 공연, 임덕호 광주U대회 선수촌장

환영사, 입촌 선언, 국기제양,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 연주, 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황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한국 선수단은 노래 '강남스타일'에 맞춰 가볍게 춤을 추고 자원봉사자들과 기념 '셀카'를 찍으며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기보배(27·광주시청)는 "2개월 만에 광주를 찾아 기쁘다"며 "연습한 대로만 결실을 맺고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치

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은 선수 382명, 임원 134명 등 총 516명의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선수촌에는 기계 체조와 축구, 배구, 수구, 다이빙, 사격, 양궁, 테니스, 조정 등 9개 종목 222명이 입촌했다. 대회 흥행을 좌우할 손연재·양학선·이용대·기보배 등 스타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인 태권도·유도·양궁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캔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사격과 배드민턴에서도 선전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선봉에는 광주·전남 선수들이 있다. 광주·전남 소속이거나 연구 선수는 총 60

명(선수 51명·임원9)이 출전, 메달사냥에 나선다. 여자 유도의 기대주 김성연(24·광주도시철도공사)이 고향에 가장 먼저 금메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3·한국체대), 미녀공사 기보배(27·광주시청)와 최미선(19·광주여대), 배드민턴 황태자 이용대(27·삼성전기) 등도 금메달 사냥 준비를 마쳤다. 구기 종목인 핸드볼 김운아(27·인천시청)·주희(26·서울시청), 축구 김동준(21·연세대)·전인규(22·남부대), 야구 이건열 감독(52·동국대) 등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박정욱·백희준기자 jwpark@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